

## 한국 - 유럽기술교류와 재구과연

**“技術 협력선 다변화 해야할 때”**

吳榮錫

재구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회장  
Rhone Poulenc 연구소 연구책임자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역사시간에 지난 날의 선조들이 이룩하여 놓은 찬란한 발명과 발전의 업적을 배웠으며, 참으로 위대한 과학기술을 이룩하였다고 여겨 왔다.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나의 믿음과 경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나, 지금에 와서 한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 그러한 발명·발견들에 관한 사항들은 항상 과거형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으며, 차대의 과학기술 발전과 어떠한 연계가 있었는지는 전혀 배운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찬란한 과학기술 문화를 형성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시대와 공간적으로 유리되어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GUTENBERG보다 200년 앞선 금속활자의 발명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서기 1234년에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한권도 전해지지 않으며, 현존하는 최고본은 1297년에 발간한 불경이라고 한다. 또한 1377년에 발간된 불경은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홀륭한 인쇄기술을 발명한 후에 변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아마 예의범절

과 종교에 관한 몇몇 책들이 발간되었으나, 서양과 같이 정보의 민주화를 통한 정보교류의 매체가 됨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지는 못하였다 것 같다. 아마, 아직 백성 전체가 쉽게 읽고 쓸수 있는 한글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이었으니 책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 있었다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인쇄기술의 활용·보급·개량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GUTENBERG가 1450년경에 인쇄기술을 발명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성서를 출간하였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서는 대중화를 이루하게 되었으며, 이는 성직자들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성직자의 세력 약화를 유발한 신기술은 봉건성주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으며, 세력의 확장을 위하여 하늘의 선물인 인쇄기법의 활용·보급·개량을 정책적으로 펼쳐 나갔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의 교류가 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복잡 다양화

고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지역과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현지 한국 과학기술자와 국내에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협동한다면 국내의 과학기술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외과학기술자들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재구과연의 연혁과 현황

재구과연은 1974년 10월 26일 불란서의 민선식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구과협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 설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의 결실로 1975년 6월 1일 독일의 아헨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초기의 단일 과협의 성격을 띠었던 것과는 달리 유럽 각국에 현존하는 과협들을 종합하는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협회로 발족되었다. 1976년 5월에 열린 총회에서 「재구라파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명실상부한 연합회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재구과연의 구성은 현재 3개 과협-재불과협(ASCoF), 재영과협(KSEAU), 재독과협(VeKNI)-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권에 따라 타유럽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재불과협의 경우는 불란서, 벨지움, 이태리, 스페인등 라틴어권의 국가들을 관장하고 있다.

여타 재외과학자는 달리 재구과연은 언어, 문화, 사회가 서로 다른 나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과협의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며, 각 과협의 자율성이 최대한도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다는 신념하에 공동협력을 하고 있다.

일종의 행정적인 업무체계로서 각 언어권을 관장하는 각국 과협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전체 한국 과학기술자들을 전공별로 연결시켜 주는 전문분과위원회가 있어서 MATRIX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구과연의 자산 및 기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위원회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과연의 세대를

연계시켜 주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재구과연의 활동은 각국 과협간의 공동협력활동, 각 과협의 독립적인 활동, 그리고 재구과연의 자체적인 활동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가) 공동협력 활동: 종합학술발표회, 인명부, 회보등의 발간·홍보사업, 용역사업등

나) 독립적 활동: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지역회, 소속국가와의 협력사업, 회보등의 홍보, 발간사업, 용역사업 등

다) 자체사업: 국내외 기관과의 연결, 대내외 홍보, 협력사업 등

재구과연의 회원은 1700명이며 연 예산은 약 15만 USD로서 정부보조금 6만 USD의 150%를 자체 수익사업에 의거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임원들이 각자 자기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에 임원들의 상당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나, 모두들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다.

## 2.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1993년에 유럽통합이 이루어짐을 계기로 하여, 유럽은 과학기술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내과학기술·산업이 일부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향후 기술예속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기술협력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급선무의 하나이다. 아울러, 유럽의 과학기술연구형태를 고찰하여 볼 때에, 한국형으로 발전, 적용하기에 적합함을 인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을 때에 한국-유럽간의 협력이 반드시 현단계보다는 한차원 높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국가간에 역사·문화·사회·국민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한국과 유럽간의 협력관계를 관찰하여 볼 때에 두 당사들 사이에 Communication Protocol의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변수들에 기초를 둔 상호간의 이해부족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인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을 이루할 수 있도록 재구과연은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재구과연, 나아가서는 재외과학기술자와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와 재외과학기술자 간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긴밀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 1) 국내과학기술계와 재구과연과 정보교류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찰해 보면, 국내과학기술계가 재외과학기술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정보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내용과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전홍보등의 준비가 없이 갑작스러운 요구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미국·일본의 문화영향권 외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구과연이 국내과학기술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과학기술 정책·경향에 관하여 재외과학기술자를 통한 홍보. ▲각종 과학기술계(과학자회, 과학재단, 과총, 정부출연연구소) 발간물의 배포 등의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2) 재외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인턴연구원제도 설정

해외거주 과학기술자들이 국내의 산·학·연 등의 관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계와 재외과학기술자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으로는 이미 활약중인 과학기술자와 학위과정 최종연도에 있는 연구원으로 하며, 이러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외과학기술자의 실질적인 활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에는 가능한한 과학기술 협력 진행에 관하여 해당국 과협에 홍보를 하고 현지 과협소속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국제학술회의

학술회의 등 국제적인 모임에 국내과학기술 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현지과학기술자에게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과협은 해당회의의 발간물 및 보고서를 관련의뢰 기관에 송부함으로써, 국내과학기술계는 해당분야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

### 5) 전문 정보취급기관의 설립

재외과학기술의 성격상 현 상태로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난점을 타개하고 국내과학기술계가 필요로 하는 심층정보의 수집을 위하여는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와 국내의 사정을 이해하며 재외과학기술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심층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단체의 설립이야말로 급속도로 변모하여 가는 국제과학기술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 3. 결론

유럽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과학기술의 다양함과 한국형 모델개발에 적합한 연구개발기술을 재구과연과 협력하여 국내에 활용한다면 2000년대를 과학기술발전 계획의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과학기술이 한국에 이전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와 재구과연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상호 정보교환·인력교류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